
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 **2025년 1분기**

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분석

2025. 6.

»» 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품목별 현황	3
III. 장소별 현황	7
IV. 위험·위해원인별 현황	9
V. 위해정도별 현황	11
VI. 인구통계학적 현황	15
VII. 특이 사례	17

✓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 :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, 52개 소방서,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 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

- * '25. 5. 9. CISS 조회 기준이며, 데이터 가공처리 기한 내 수치 변동 가능
- *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- * '25년 1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분석은 전년 동기를 기준으로 분석함.

I 일반 현황

1. 분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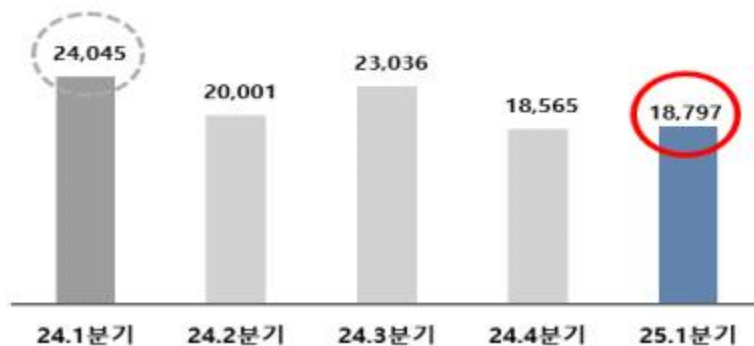
-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2025년 1분기 피해정보는 총 18,797건으로 전년 동기(2024년 1분기) 24,045건 대비 21.8%(5,248건) 감소함.

[분기별 현황]

단위 : 건, %

구분	2024년 1분기	2025년 1분기	증감률(전년 동기 대비)
접수 건수	24,045	18,797	△ 21.8

[분기별 접수 추이]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2. 수집채널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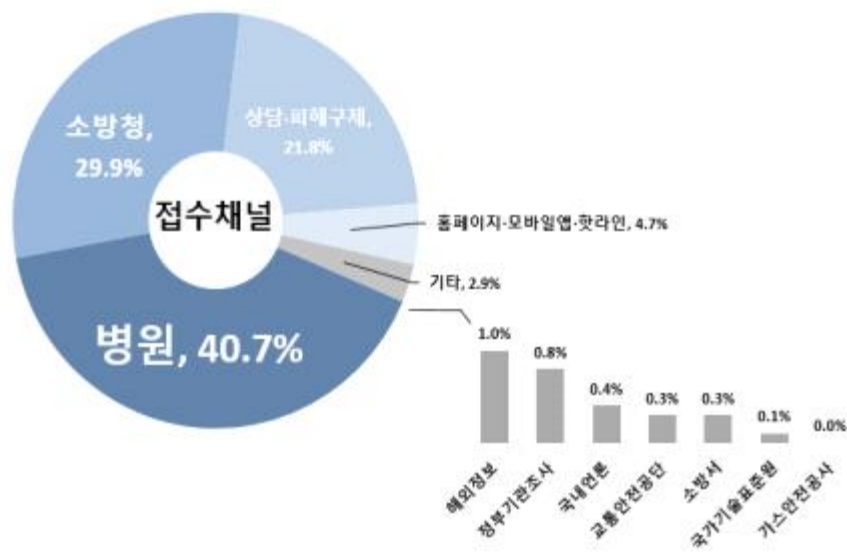
- 피해정보 접수 채널 중 병원으로부터 접수된 피해정보는 7,650건으로 1분기 접수 건의 40.7%를 차지하였으며, 전년 동기(11,577건) 대비 33.9% 감소함.
- 상담 피해구제를 통한 접수는 4,094건(21.8%)으로 전년 동기(4,725건) 대비 13.4% 감소함
 - 소비자가 '홈페이지·모바일앱·핫라인'을 이용하여 직접 제공한 피해정보는 885건(4.7%)이며, 전년 동기(721건) 대비 22.7% 증가함.
 - 피해정보 연계기관별로는 '소방청' 5,611건(29.9%), '교통안전공단' 65건(0.3%), '국가기술표준원' 17건(0.1%)이 접수됨.

[접수채널별 현황]

단위 : 건, (%)

구분		2024년 1분기	2025년 1분기	증감률
		건수(비율)	건수(비율)	
위해정보 제출기관	병원	11,577(48.1)	7,650(40.7)	△33.9
	소방서	-	49(0.3)	-
		11,577(48.1)	7,699(41.0)	△33.5
연계기관	소방청	4,825(20.1)	5,611(29.9)	16.3
	교통안전공단	1,902(7.9)	65(0.3)	△96.6
	국가기술표준원	24(0.1)	17(0.1)	△29.2
	가스안전공사	-	7(0.0)	-
		6,751(28.1)	5,700(30.3)	△15.6
소비자 직접 신고	상담·피해구제	4,725(19.6)	4,094(21.8)	△13.4
	홈페이지· 모바일앱·핫라인	721(3.0)	885(4.7)	22.7
		5,446(22.6)	4,979(26.5)	△8.6
해외정보		258(1.1)	189(1.0)	△26.7
국내언론		13(0.1)	84(0.4)	546.2
정부기관조사		-	146(0.8)	-
총계		24,045(100.0)	18,797(100.0)	△21.8

[접수채널별 현황]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※ 2025년 1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분석은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화재정보 수집 확대(16.3%↑), 대학병원 전공의 파업의 영향으로 병원정보 수집이 감소(33.9%↓)함에 따라 품목·장소·원인 등에서 전년 동기 대비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.

Ⅱ 품목별 현황

1. 총 현황

- 품목 대분류별 접수 건수는 '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'가 3,614건(19.2%)으로 가장 많았고, '가공식품' 3,088건(16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'기타 장비 및 제품'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6.2% 증가했고, 주로 동파방지용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접수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품목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품목(대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	4,279	17.8	3,614	19.2	△15.5
가공식품	3,129	13.0	3,088	16.4	△1.3
가전제품 및 정보통신기기	3,605	15.0	2,772	14.7	△23.1
가구 및 가구설비	2,449	10.2	1,836	9.8	△25.0
스포츠 및 취미용품	1,314	5.5	1,199	6.4	△8.8
건물, 시설 및 서비스	1,174	4.9	989	5.3	△15.8
의약(외)품 및 의료용구	1,011	4.2	975	5.2	△3.6
자동차 및 관련 용품	2,853	11.9	824	4.4	△71.1
생활용품	602	2.5	527	2.8	△12.5
의류, 신발, 가방, 보석 및 시계	386	1.6	526	2.8	36.3
조명기구 및 전기 부품&용품	536	2.2	506	2.7	△5.6
축산·수산물 식품	597	2.5	398	2.1	△33.3
주방기기 및 용품	546	2.3	273	1.5	△50.0
화장품 및 화장용품	258	1.1	264	1.4	2.3
완구 및 게임용품	483	2.0	245	1.3	△49.3
식물 식품	149	0.6	201	1.1	34.9
연료 및 전지	119	0.5	137	0.7	15.1
농·임·어업용 기계 및 관련용품	186	0.8	81	0.4	△56.5
도서, 음반 및 문구용품	179	0.7	69	0.4	△61.5
애완 동·식물 및 용품	64	0.3	58	0.3	△9.4
화재, 안전 및 보안 장비	63	0.3	41	0.2	△34.9
기타 장비 및 제품	63	0.2	174	0.9	176.2
총계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2. 위해다발품목 현황

- 소분류 기준 위해다발품목은 ‘석재 또는 타일바닥재’가 2,033건(10.7%)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, ‘침대’ 881건(4.7%), ‘비닐바닥재’ 753건(4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해다발품목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주요 위해사례
	품목(소분류)	건수(비율)	품목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석재 또는 타일바닥재	1,682(7.0)	석재 또는 타일바닥재	2,003(10.7)	•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쪽 고관절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2	침대	1,074(4.5)	침대	881(4.7)	•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발생한 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3	목재마루재	890(3.7)	비닐바닥재	753(4.0)	• 주방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팔이 골절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4	국내 승용차-중형	835(3.5)	목재마루재	512(2.7)	• 거실 마루바닥재가 파손되면서 튀어나온 나무 기저에 우측 엄지 발가락이 찢려 병원 진료를 받음.
5	비닐바닥재	778(3.2)	전기장판 및 전기요	348(1.9)	•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서 전기장판 사용 중 축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6	전기장판 및 전기요	333(1.4)	일반자전거	324(1.7)	•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핸들에 부딪혀 발생한 흉부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7	음식물 처리기	320(1.3)	수산물	287(1.5)	• 생굴을 먹은 후 오심, 구토, 설사를 동반한 복통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8	굴	314(1.3)	가습기	209(1.1)	• 가열식 가습기가 넘어지면서 내부의 뜨거운 물이 누수되어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9	수산물	313(1.3)	고기류	187(1.0)	• 돼지고기 섭취 후 발열, 구토, 어지럼증을 동반한 상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10	가정용 정수기	289(1.2)	소파	177(0.9)	• 소파에서 떨어지면서 마디를 부딪혀 낙상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
3. 증가율 상위 품목 현황

- 전년 동기 대비 위해정보 증가율 상위 품목은 '연극의상 또는 액세서리'가 1400.0%로 가장 높았고, '스키부츠' 857.1%, '로션, 크림' 370.0%, '기타 장비 및 제품' 357.6%, '가정용 전기레인지' 276.2%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※ '연극의상 또는 액세서리', '스키부츠'의 경우 해외 리콜 및 판매 차단된 제품의 국내 재유통 등으로 관련 제보가 증함

[증가율 상위 품목* 현황]

단위 : 건, %

순번	품목(소분류)	건수		증가율	주요 위해사례
		2024년 1분기	2025년 1분기		
1	연극의상 또는 액세서리	2	30	1,400.0	• 어린이가 소형 전지를 삼킬 위험이 있어 해외 리콜 및 판매 차단된 코스튬 의상이 국내에 재유통되어 제보함.
2	스키부츠	7	67	857.1	• 부품 이상으로 낙상 위험이 있어 해외 리콜 및 판매 차단된 스키 부츠가 국내에 재유통되어 제보함.
3	로션, 크림	10	47	370.0	• 크림을 바른 후 얼굴에 홍조 및 피부발진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4	기타 장비 및 제품	31	151	357.6	• 수도배관에 감아둔 동파 방지용 열선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5	가정용 전기레인지	21	79	276.2	• 반려동물에 의해 전기레인지 스위치가 작동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6	목욕 의자	12	41	241.7	• 목욕탕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샤워기에 부딪혀 파손된 안경의 파편이 눈에 들어가 병원 진료를 받음.
7	피부관리기	14	45	221.4	• 피부관리기 사용 중 온도 과열로 눈과 눈 주변에 화상을 입어 병원 진료를 받음.
8	전기히터(난로)	27	79	192.6	• 전기난로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9	화목/펠렛 스토브(난로)	17	47	176.5	• 화목난로 내 소화되지 않은 불씨가 재발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10	헬스용 사이클	12	33	175.0	• 자전거에서 내려오던 중 안장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
※ '25년 1분기 위해정보가 30건 이상인 품목 중,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함.

4. 감소율 상위 품목 현황

□ 전년 동기 대비 위해정보 감소율 상위 품목은 ‘국내 승용차-중형’이 79.5%로 가장 높았으며, ‘목재문’(△75.8%), ‘음식물 처리기’(△69.7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※ ‘국내 승용차-중형’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차량정보 수집 감소(96.6%)로 인해 위해정보가 크게 감소함.

[감소율 상위 품목* 현황]

단위 : 건, %

순번	품목(소분류)	건수		감소율
		2024 년 1 분기	2025 년 1 분기	
1	국내 승용차-중형	835	171	△79.5
2	목재문	190	46	△75.8
3	음식물 처리기	320	97	△69.7
4	구슬	112	37	△67.0
5	키패드	110	38	△65.5
6	수입 승용차-대형	125	44	△64.8
7	가정용 김치냉장고	214	77	△64.0
8	스키	161	65	△59.6
9	휴대폰	244	104	△57.4
10	수입 승용차-중형	148	64	△56.8

※ '25년 1분기 위해정보가 30건 이상인 품목 중, 전년 동기 대비 감소율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함.

Ⅲ 장소별 현황

1. 총 현황

- 위해발생장소는 대분류 기준 '주택'이 10,499건(55.9%)으로 가장 많았고, '숙박 및 음식점' 1,555건(8.3%), '도로 및 인도' 564건(3.0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'복지 및 노인요양시설'이 50.0%으로, 시설 내부에서의 미끄러짐·넘어짐 사고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
[위해발생장소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장소(대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주택	14,164	58.9	10,499	55.9	△25.9
숙박 및 음식점	1,329	5.5	1,555	8.3	17.0
도로 및 인도	2,413	10.0	564	3.0	△76.6
여가, 문화 및 놀이시설	437	1.8	364	1.9	△16.7
스포츠/레저시설	493	2.1	343	1.8	△30.4
의료서비스시설	248	1.0	248	1.3	0.0
기타 상업시설*	190	0.8	226	1.2	18.9
복지 및 노인요양시설	148	0.6	222	1.2	50.0
교육시설	260	1.1	189	1.0	△27.3
교통시설	242	1.0	167	0.9	△31.0
쇼핑시설	110	0.5	105	0.6	△4.5
농·수·축산업 지역	127	0.5	55	0.3	△56.7
종교 및 문화시설	27	0.1	27	0.1	0.0
공공시설	18	0.1	18	0.1	0.0
자연 및 관련시설	22	0.1	12	0.1	△45.5
산업 및 건설지역	3	0.0	2	0.0	△33.3
기타**	3,814	15.9	4,201	22.3	10.1
총계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* 주유소, 세차장, 편의점, 제과점, 이·미용실 등

** 해외정보 등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소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

2. 다발장소 현황

- 소분류 기준 위해다발장소는 ‘상세불명의 주택’이 5,114건(27.2%)으로 가장 많았고 ‘아파트’ 3,788건(20.2%), ‘카페 및 음식점’ 1,431건(7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해다발장소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주요 위해사례
	장소(소분류)	건수(비율)	장소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아파트	6,314(26.3)	상세불명의 주택	5,114(27.2)	• 쓰러지는 책장에 부딪혀 깔리면서 발목이 골절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2	상세불명의 주택	5,696(23.7)	아파트	3,788(20.2)	• 주차장 스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둔부 타박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3	상세불명의 장소	3,787(15.7)	카페 및 음식점	1,431(7.6)	• 카페에서 음료를 섭취하던 중 혼입된 플라스틱 조각을 삼켜 체내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4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	2,102(8.7)	다세대주택	717(3.8)	• 두피약을 안약으로 오인하여 안구에 점안한 후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5	카페 및 음식점	1,244(5.2)	단독주택	654(3.5)	• 자붕 수리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얼굴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6	다세대주택	1,037(4.3)	상세불명의 도로 및 인도	410(2.2)	• 자전거 주행 중 펜스에 걸려 넘어지면서 좌측 손목으로 지면을 짚어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7	단독주택	789(3.3)	목욕탕	170(0.9)	• 목욕탕 세신용 침대에 올라가던 중 넘어지면서 어깨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8	연립주택	293(1.2)	요양원	133(0.7)	• 요양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안전바에 머리를 부딪혀 후두부 타박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9	스키장	267(1.1)	기타 주택	132(0.7)	• 헤어드라이기 사용 중 스파크가 발생하여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10	목욕탕	217(0.9)	종합병원	118(0.6)	• CT촬영을 위해 조영제 투여 후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
IV 위험·위해원인별 현황

1. 총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험·위해 원인은 '물리적 충격'이 7,304건(38.9%)으로 가장 많았고, '식품 및 이물질' 3,941건(21.0%), '제품 관련' 3,800건(20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'물리적 충격'의 경우 '석재 또는 타일바닥재', '비닐바닥재', '목재마루재' 등 주로 실내에서의 '미끄러짐·넘어짐' 사고 사례가 다발한 것으로 나타남.
- '피부 관련'의 경우 주로 '로션, 크림', '전기마사지기' 등 '피부접촉에 의한 위험 및 위해' 사례 접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[위험·위해원인별(대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원인(대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물리적 충격	9,110	37.9	7,304	38.9	△19.8
식품 및 이물질	4,570	19.0	3,941	21.0	△13.8
제품 관련	6,400	26.6	3,800	20.2	△40.6
화재·발연·과열·가스	1,423	5.9	1,332	7.1	△6.4
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	1,735	7.2	1,296	6.9	△25.3
의료기술 및 약물	453	1.9	517	2.8	14.1
피부 관련	177	0.7	211	1.1	19.2
기타*	177	0.8	396	2.0	123.7
총계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* 해외정보, 표시사항 미흡 등 분류되지 않는 기타 위험·위해의 경우

2. 다발 위험·위해원인 현황

- 소분류 기준 다발 위험·위해원인은 ‘미끄러짐·넘어짐’이 5,466건(29.1%)으로 가장 많았고, ‘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’ 3,331건(17.7%), ‘기타 불량 및 고장’ 2,531건(13.5%), ‘추락’ 1,378건(7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상위 10개 위험·위해원인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(%)

순번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주요 위해사례
	원인(소분류)	건수(비율)	원인(소분류)	건수(비율)	
1	미끄러짐·넘어짐	5,825(24.2)	미끄러짐·넘어짐	5,466(29.1)	•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2	기타 불량 및 고장	3,963(16.5)	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3,331(17.7)	• 마라탕 섭취 후 구토,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3	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	3,528(14.7)	기타 불량 및 고장	2,531(13.5)	• 정수기 살균기능 고장으로 오염된 물을 섭취한 후 설사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4	추락	2,068(8.6)	추락	1,378(7.3)	• 70CM 높이의 유아용 식탁 의자에서 추락하면서 머리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5	기타 전기관련	1,073(4.5)	기타 전기관련	912(4.9)	• 멀티탭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 중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6	기능고장	996(4.1)	파열·파손·꺾여짐	487(2.6)	• 사워부스가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어 손에 열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7	파열·파손·꺾여짐	700(2.9)	파열	463(2.5)	• 장시간 전기장판 사용 중 파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.
8	예리함·마감처리 불량	583(2.4)	기타 위험 및 위해내용	383(2.0)	• 건강식품 섭취 후 혈당 수치가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하여 환급을 문의함.
9	부딪힘	537(2.2)	약물 부작용	353(1.9)	• 감기약 복용 후 전신 발진 및 가려움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10	연료·액체 누수 등	527(2.2)	기능고장	349(1.9)	• 무선주전자 사용 중 가열중단 기능 미작동으로 손잡이가 파열되어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
V

위해정도별 현황

1. 위해부위별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해부위는 '머리 및 얼굴'이 3,833건(20.5%)으로 가장 많았고, '신체내부' 3,099건(16.4%), '둔부, 다리 및 발' 2,113건(11.3%), '팔 및 손' 1,024건(5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소분류 기준으로는 '신체내부-소화계통(식도위장대장 등)'이 2,918건(15.5%)으로 가장 많았고, '머리 및 뇌(뇌막)' 2,166건(11.5%), '둔부' 792건(4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위해부위별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부위(대분류)	부위(소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머리 및 얼굴 (3,833건, 20.5%)	머리 및 뇌(뇌막)	2,331	9.7	2,166	11.5	△7.1
	이마	613	2.5	360	1.9	△41.3
	눈 및 눈주변(눈썹 및 눈꺼풀)	667	2.8	318	1.7	△52.3
	코	456	1.9	199	1.1	△56.4
	입술, 혀	326	1.3	181	1.0	△44.5
	턱	271	1.1	128	0.7	△52.8
	치아	139	0.6	89	0.5	△36.0
	귀 및 고막	197	0.8	68	0.4	△65.5
	잇몸 및 구강	91	0.4	56	0.3	△38.5
	안구	278	1.2	41	0.2	△85.3
	볼	88	0.4	34	0.2	△61.4
	인중	29	0.1	14	0.1	△51.7
	머리카락	1	0.0	4	0.0	300.0
	기타 얼굴부위	221	0.9	175	0.9	△20.8
신체내부 (3,099건, 16.4%)	신체내부-소화계통 (식도, 위장, 대장 등)	3,092	12.9	2,918	15.5	△5.6
	신체내부-호흡계통 (기도, 폐 등)	88	0.4	100	0.5	13.6
	신체내부-기타 (혈관 및 장기 등)	36	0.1	81	0.4	125.0

부위(대분류)	부위(소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둔부, 다리 및 발 (2,113건, 11.3%)	둔부	544	2.2	792	4.2	45.6
	다리(무릎 위)	599	2.5	526	2.8	△12.2
	무릎	308	1.3	261	1.4	△15.3
	발목	255	1.0	211	1.1	△17.3
	다리(무릎 아래, 무릎 및 발목 제외)	186	0.8	142	0.8	△23.7
	발	168	0.7	78	0.4	△53.6
	발가락	143	0.6	53	0.3	△62.9
	생식기 주변 및 회음부	64	0.3	47	0.3	△26.6
	발톱	5	0.0	3	0.0	△40.0
팔 및 손 (1,024건, 5.4%)	손가락	897	3.7	323	1.7	△64.0
	손목	287	1.2	232	1.2	△19.2
	손	325	1.4	161	0.9	△50.5
	팔(윗부분)	171	0.7	106	0.6	△38.0
	팔꿈치	180	0.7	102	0.5	△43.3
	팔(아래부분, 팔꿈치 및 손목 제외)	183	0.8	96	0.5	△47.5
	손톱	13	0.1	4	0.0	△69.2
몸통 (1,015건, 5.3%)	허리	493	2.1	572	3.0	16.0
	흉부	281	1.2	257	1.4	△8.5
	옆구리	63	0.2	84	0.4	33.3
	등	102	0.4	58	0.3	△43.1
	복부	54	0.2	44	0.2	△18.5
목 및 어깨 (334건, 1.8%)	어깨(쇄골 포함)	286	1.2	256	1.4	△10.5
	목	77	0.3	78	0.4	1.3
기타 위해부위 (659건, 3.5%)	전신 손상	585	2.5	597	3.2	2.1
	위해부위 확인불가	56	0.2	55	0.3	△1.8
	상세미상의 위해부위	-	-	7	0.0	-
해당없음(6,716건, 35.7%)		8,796	36.6	6,720	35.8	△23.6
총계	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2. 위해증상별 현황

- 대분류 기준 위해증상은 '뇌진탕 및 타박상'이 3,608건(19.2%)으로 가장 많았고, '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' 3,163건(16.8%), '신체내부 장기손상' 2,523건(13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소분류 기준으로는 '타박상'이 3,064건(16.3%)으로 가장 많았고, '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' 2,264건(12.1%), '열상(찢어짐)' 1,577건(8.4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위해증상별(소분류) 현황]

단위 : 건, %

증상(대분류)	증상(소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뇌진탕 및 타박상 (3,608건, 19.2%)	타박상	2,694	11.2	3,064	16.3	13.7
	뇌진탕	622	2.6	544	2.9	△12.5
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(3,163건, 16.8%)	열상(찢어짐)	3,058	12.7	1,577	8.4	△48.4
	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	555	2.3	348	1.9	△37.3
	찰과상	393	1.6	283	1.5	△28.0
	두드러기	307	1.3	257	1.4	△16.3
	피부염 또는 피부발진	223	0.9	250	1.3	12.1
	출혈 및 혈종	285	1.2	243	1.3	△14.7
	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	20	0.1	80	0.4	300.0
	절상(베임)	126	0.5	45	0.2	△64.3
	가려움	37	0.2	25	0.1	△32.4
	결막염 또는 안구손상	250	1.0	21	0.1	△91.6
	박리(벗겨짐)	25	0.1	17	0.1	△32.0
	자상(찢림)	37	0.2	12	0.1	△67.6
	천공 및 관통상	6	0.0	5	0.0	△16.7

증상(대분류)	증상(소분류)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신체내부 장기손상 (2,523건, 13.4%)	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2,290	9.5	2,264	12.1	△1.1
	호흡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	70	0.3	93	0.5	32.9
	신경계통 손상 및 통증	36	0.2	77	0.4	113.9
	심혈관계통 손상 및 통증	19	0.1	46	0.2	142.1
	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	27	0.1	43	0.2	59.3
근육, 뼈 및 인대 손상 (1,343건, 7.1%)	골절	1,674	7.0	991	5.3	△40.8
	탈구	165	0.7	182	1.0	10.3
	염좌	170	0.7	102	0.5	△40.0
	파쇄(부서짐)	55	0.2	63	0.3	14.5
	절단	31	0.1	5	0.0	△83.9
화상 (310건, 1.7%)	화상-열에 의한	239	1.0	189	1.0	△20.9
	화상-뜨거운 액체나 증기로 인한	204	0.8	95	0.5	△53.4
	화상-화학물로 인한	17	0.1	14	0.1	△17.6
	화상-전기에 의한	17	0.1	10	0.1	△41.2
	화상-방사선에 의한	-	-	1	0.0	-
	화상-원인불명	1	0.0	1	0.0	0.0
전신손상 (43건, 0.3%)	중독(약물, 가스, 화학물질 등)	33	0.1	29	0.2	△12.1
	식중독 (부패·변질 음식)	19	0.1	11	0.1	△42.1
	전기충격 (감전사 포함)	12	0.0	2	0.0	△83.3
	익수(익사 포함)	-	-	1	0.0	-
	산소결핍	3	0.0	-	-	△100.0
기타 손상 (1,091건, 5.8%)	구토	385	1.6	372	2.0	△3.4
	체내 위험 이물질	641	2.7	272	1.5	△57.6
	설사	157	0.7	136	0.7	△13.4
	어지러움, 이명, 메스꺼움	97	0.4	92	0.5	△5.2
	알레르기	115	0.5	84	0.4	△27.0
	두통	79	0.3	67	0.4	△15.2
	오한, 발열	17	0.1	27	0.1	58.8
	상세미상의 위해증상	36	0.1	41	0.2	13.9
해당없음(6,716건, 35.7%)		8,798	36.6	6,716	35.7	△23.7
총계	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VI 인구통계학적 현황

1. 연령대별 현황

- '연령대'는 '만60세 이상'이 4,919건(26.2%)으로 가장 많았고, '만10세 미만' 2,517건(13.4%), '40대' 1,880건(10.0%), '50대' 1,836건(9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[연령대별 현황]

단위 : 건, %

연령대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만10세 미만	4,127	17.2	2,517	13.4	△39.0
10대	1,103	4.6	915	4.9	△17.0
20대	1,638	6.8	1,118	5.9	△31.7
30대	2,186	9.1	1,790	9.5	△18.1
40대	2,369	9.8	1,880	10.0	△20.6
50대	2,346	9.8	1,836	9.8	△21.7
만60세 이상	4,964	20.6	4,919	26.2	△0.9
미상*	5,312	22.1	3,822	20.3	△28.0
총계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* 위해자 연령을 알 수 없거나 국내 언론·해외정보 등 연령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수된 경우

2. 성별 현황

□ ‘여자’ 8,646건(46.0%), ‘남자’ 7,192건(38.3%)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음.

[성별 현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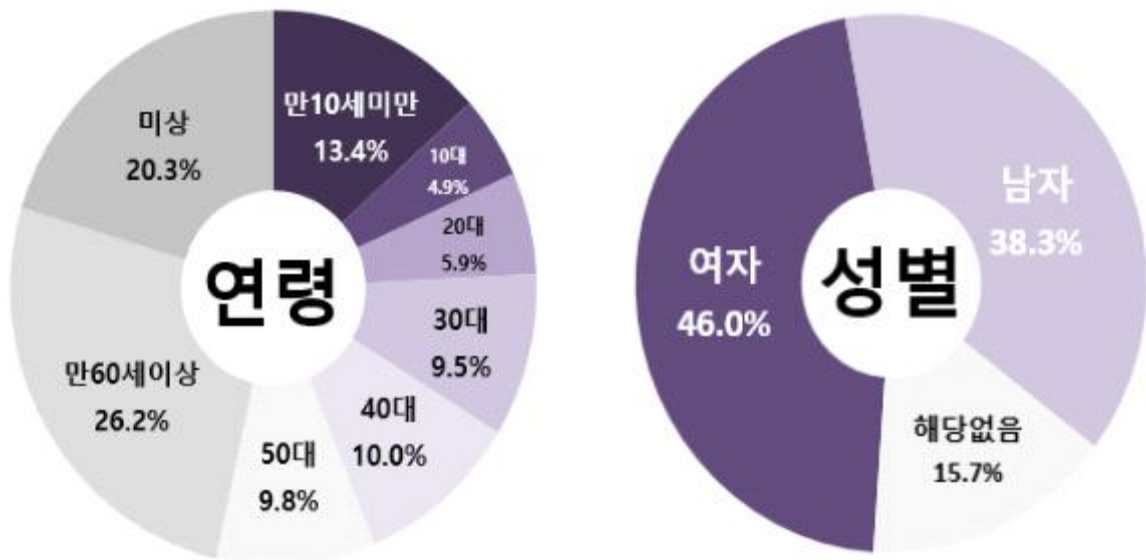
단위 : 건, %

성별	2024년 1분기		2025년 1분기		증감률
	건수	비율	건수	비율	
여자	10,541	43.8	8,646	46.0	△18.0
남자	11,012	45.8	7,192	38.3	△34.7
해당없음*	2,492	10.4	2,959	15.7	18.7
총계	24,045	100.0	18,797	100.0	△21.8

* 성별을 알 수 없거나 국내 언론·해외정보 등 성별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접수된 경우

[인구통계학적 현황]

단위 : %



출처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

VII 특이 사례

순번	품목	주요 위해내용
1	수유용 패드	(만0세, 여) 수유용 패드가 터지면서 아이가 젤타입 내용물을 섭취하여 체내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2	빙초산	(만7세, 여) 빙초산을 물로 착각하고 섭취하여 체내 이물질로 병원 진료를 받음.
3	기타 건강식품	(만12세, 여) 식욕억제제 복용 후 두통, 시력이상, 의식저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4	음식물 처리기	(만29세, 남) 음식물 처리기의 안전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
5	기타 가정용 청소 및 세탁용품	(만31세, 여) 건조기용 섬유유연제 시트 사용 후 피부염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6	기타 해충 퇴치 제품 (전기 모기채 등)	(만49세, 남) 전기 모기채를 사용하여 모기를 잡던 중 기기가 폭발하여 발생한 난청, 이명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7	가정용 진공보온병	(만59세, 남) 가열식 텀블러 사용 중 뚜껑을 열자 뜨거운 물이 솟구쳐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음.
8	인체 조직 또는 기능 대체품	(만64세, 남) 물을 마시던 중 부분 틀니를 함께 삼켜 호흡부전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를 받음.
9	버스정거장 및 버스여객서비스	(만71세, 남) 버스에서 넘어지면서 의자 모서리에 우측 옆구리를 부딪혀 발생한 복통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.
10	고령자용 보행보조차	(만88세, 남)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잡고 걷다가 넘어지면서 흉부가 골절되어 병원 진료를 받음.